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전화 : 86-10-6505-2671/3
 이메일 : beijingk@kita.net

1 中 경제학자, 2023년 GDP 성장률 5% 이상 전망

- 중국 민생은행(民生银行) 수석애널리스트는 2023년 중국의 GDP 증가율을 5.5% 안팎으로 전저후고(前低后高)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함
- 중항펀드(中航基金) 수석애널리스트는 2023년 내수가 외수를 대체하여 중국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소비가 비교적 빠르게 회복되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인프라 투자 증가율이 여전히 높을 것으로 분석함
 - 투자 분야는 인프라, 제조업, 부동산개발 투자가 잠재력이 있으며, 인프라 건설은 올해 조달한 6,000억 위안(약 110조원) 규모의 정책성 자금이 작용을 발휘하고, 제조업 분야는 설비교체 지원 재대출, 중장기 대출 등으로 투자를 견인하며, 부동산 시장은 일련의 지원 조치, 개선형 주택 수요 등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함
- 초상펀드(招商基金) 수석애널리스트는 내년에도 소비가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투자가 중요한 작용을 발휘할 것으로 분석함
- 중신증권(中信证券) 수석애널리스트는 2023년 소비재 판매액 증가율이 7~8%, 서비스업 부가가치 증가율이 5~6% 수준으로 회복되고 오프라인 소비와 서비스업 경기가 뚜렷하게 회복되며, 무역 분야는 아세안 국가에 대한 수출 증가율이 현저히 높고 유럽 시장 대상 에너지 소비가 높은(에너지 소비효율이 낮은)분야에 대해 대체품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함

자료원 : 증권일보망

<http://www.zqrb.cn/finance/hongguanjingji/2022-12-23/A1671726984105.html>

2 中, 탄소배출권 누적 거래액 100억 위안(한화 약 1.8조원) 돌파

- 최근 중국의 탄소배출권(CEA) 누적 거래량은 2억 2,300만 톤, 누적 거래액은 100억 위안(약 1.8조원)을 돌파하였음

- 중국은 2021년 7월 16일부터 탄소배출권 거래를 개시한 후 전력업체 2,000개사 대상으로 글로벌 최대 규모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형성하였음
- 중타이(中泰)캐피탈 관계자는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과 온실가스 배출 표준체계가 점차 완비되면서 탄소배출권 거래가 전력기업에서 기타 업종으로 확되고, 더 많은 업종이 환경보호 기술을 도입하여 탄소배출량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힘
- 하이난성 녹색금융연구원은 생태환경부에서 발표한 '2022년 기업 온실가스 배출 보고·관리 관련사업 통지'에 근거하여 전국 범위에서 건축자재,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화학공업, 제지, 민용 항공 등 업종 종사기업과 기타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 보고 사업을 전개하여 전국적인 탄소배출 시장 구축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힘

자료원 : 중국경제망

http://www.ce.cn/cysc/newmain/yc/jsxw/202212/23/t20221223_38303589.shtml

3 中, 올해 1~11월 외자이용액 9.9% 증가

-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11월 외자이용액은 전년 동기대비 9.9% 증가한 1조 1,560억 위안(약 212조원)이며, 달러로 계산시 12.2% 증가한 1,781억 달러임
- 서비스업의 외자용액은 0.9% 증가한 8,426억 위안(약 154조원), 첨단 산업의 외자이용액은 31.1% 증가, 이 중 첨단 제조업(의약품, 항공우주설비, 전자통신설비, 컴퓨터·사무설비, 의료설비 등 제조업)은 58.8%, 첨단 서비스업(정보통신, 과학기술, 비즈니스 등 서비스업)은 23.5% 증가함
- 투자국별로는 한국, 독일, 영국, 일본의 대중 투자가 각각 122.1%, 52.6%, 33.1%, 26.6% 증가했고, 지역별로는 동부, 중부, 서부 지역의 외자이용액이 각각 7.7%, 28.6%, 24.6% 증가함
- 상무부 대변인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23도년 외자유치 확대 계획을 밝힘. 외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를 축소하고 진입 문턱을 낮추며 현대서비스업 분야 개방을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 장려산업 목록(2022년판)'과 제조업, R&D센터 등 관련 정책 실시로 첨단제조업, 현대서비스업, 에너지절감·환경보호, 과학기술혁신 등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유도할 예정

자료원 : 인민일보 해외판

http://paper.people.com.cn/rmrbhwb/html/2022-12/24/content_25956025.htm

4 中, 올해 1~11월 소매판매액 전년과 비슷...11월 5.9% 감소

-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1~11월 소매판매액은 전년 동기대비 0.1% 감소한 39조 9,190억 위안(약 7,319조원)이며, 이 중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판매액은 0.2% 감소한 35조 8,490억 위안(약 6,573조원)로 집계됨
- 상품 소매판매액은 0.5% 증가한 35조 9,406억 위안(약 6,589조원), 요식업 매출은 5.4% 감소한 3조 9,784억 위안(약 729조원)임. 규모이상(*연매출 500만 위안 이상) 슈퍼, 편의점, 전문점(专业店, Specialty Store)의 소매판매액은 각각 3.1%, 4.3%, 3.6% 증가, 전문매장(专卖店, Exclusive Shop)은 지난해와 동일, 백화점 소매판매액은 8.0% 감소함
- 온라인 소매판매액은 4.2% 증가한 12조 4,585억 위안(약 2,284조원)이며, 이 중 상품 판매액은 6.4% 증가한 10조 8,098억 위안(약 1,982조원)으로 전체 소매판매액의 27.1%를 차지함. 식품류, 의류, 일상용품 온라인 소매판매액은 각각 15.1%, 3.4%, 6.1% 증가함
- 11월 소매판매액은 전년 동기대비 5.9% 감소한 3조 8,615억 위안(약 708조원), 이 중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판매액은 6.1% 감소한 3조 4,828억 위안(약 639조원)임. 상품 소매판매액은 5.6% 감소한 3조 4,180억 위안(약 627조원), 요식업 매출은 8.4% 감소한 4,435억 위안(약 81조원)임

자료원 : 중국 국가통계국

http://www.gov.cn/shuju/2022-12/15/content_5732112.htm

5 中, 11월 자동차 판매량 하락...연간 판매량 2,680만 대 예상

-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11월 자동차 판매량이 233만 대로 전월 대비 7.1%, 전년 동기대비 7.9% 감소하여 6월부터 이어오던 플러스 성장세를 마감함
- 11월 자동차 판매량이 부진으로 올해 연간 판매량 예상치를 2,750만대에서 2,680만 대(증가율 2%)로 조정하고 2023년 자동차 판매량은 2,760만 대(증가율 3%)로 예상함
- 이와 반면 11월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72.3% 증가한 78.6만 대로 역대 신기록을 경신하였고 1~11월 누적 판매량은 600만 대 이상으로 시장점유율이 25%에 달함. 2023년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35% 증가한 900만 대로 추산됨

자료원 : 중국소비자신문

<http://industry.caijing.com.cn/20221221/4907881.shtml>

6 광둥성, 1~11월 일대일로 연선 국가 간 수출입 11.8% 증가

- 광둥성 해관에 따르면 올해 1~11월 일대일로 연선 국가 간 수출입은 전년 동기대비 11.8% 증가한 2조 500억 위안(약 376조원)이며, 이 중 수출은 16.3% 증가한 1조 3,600억 위안(약 249조원), 수입은 3.9% 증가한 6,900억 위안(약 127조원)임
- 수출 분야는 전기기계제품 수출 증가율이 9.9%로 전체 수출의 64.6%를 차지하였음. 이 중 전기 재료, 자동화 데이터처리 설비 및 부품, 집적회로 수출이 각각 27.6%, 17.1%, 26.7% 증가함
- 수입 분야는 농산품 수입이 20.2% 대폭 증가했으며, 이 중 견과일·견과류, 수산품 수입이 각각 30.9%, 46.9% 급증함

자료원 : 양청석간신문

<https://baijiahao.baidu.com/s?id=1753053619325798145&wfr=spider&for=pc>

7 중국산 전기온열기(히터), 해외 시장에서 인기몰이

- 중국산 전기온열기(히터)가 유럽에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중국 최대 소형가전 수출 도시 중 하나인 저장성 초시시(慈溪市)는 과거 동남아, 중동 지역에 주로 상품을 수출했는데 올해는 대 유럽시장 수출이 급증함
- 초시시는 '가전의 도시'로 불리우며 가전제품 생산업체가 2,000여개사에 달하고, 전기온열기 생산업체는 100여개사로 수출량은 전국의 1/3에 근접함
- Ningbo시 해관통계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초시시의 전기온열기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2.6% 증가한 40.6억 위안(약 7,443억원)이며, 이 중 EU 시장 수출이 34.8% 증가한 18.7억 위안(약 3,428억원)으로 나타났음
- 현지 전기온열기 생산업체 관계자는 유럽시장 주문량이 증가한 원인을 유럽인들이 선호하는 심플한 외관과 색상으로 신품을 디자인한데 있다고 밝힘

자료원 : 인민일보 해외판

http://paper.people.com.cn/rmrbhwb/html/2022-12/23/content_25955849.htm

8 中, 100대 외자기업 2021년 매출 GDP 7% 차지

- 중국 후룬연구원은 '2022년 후룬 중국 100대 외자기업 및 웨강아오 대만구 투자지침'을 발표하여 중국경제에 대한 공헌도가 높은 100대 외자기업의 2021년 매출 총액이 7조 6,000억 위안(약 1,394조원)으로 GDP의 7%를 차지했다고 발표함
- 100대 외자기업 직원수는 총 300만 명으로 업체별 3만 명에 달했고, 59%의 기업은 B2C 기업, 41%는 B2B 기업, 81%는 상품 판매, 19%는 소프트웨어 혹은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동차, 소비재, 의료건강, 전자제품 등 4대 업종 기업수가 절반을 차지함
- 국가별로는 미국계 기업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일본계, 영국계, 독일계, 프랑스계 순이며, 상기 5개국 기업이 전체 기업수의 80%, 유럽계 기업이 전체의 44%를 차지함
- 한편 웨강아오 대만구(Greater Bay Area,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는 중국에서 개방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100대 외자기업 중 90% 이상은 대만구와 협력을 개시하였으며, 대표적인 기업은 엑슨모빌, P&G, 혼다, 폭스바겐, 필립스, 도요타, 폭스콘, LG 전자, 셀, 닛산, 시스코, 월마트, 지멘스 등임

자료원 : 중국신문망

<https://baijiahao.baidu.com/s?id=1752829365034262452&wfr=spider&for=pc>

9 中 도시 주민, 1인당 노년기 지출 84만 위안(한화 약 1.5억원) 예상

- 중국노년학노년의학학회에서 발표한 '중국 도시 실버서비스 수요보고서(2022년)'에 따르면 19개 성·시의 77만 명에 달하는 도시 주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1인당 노년기 예상 지출이 83만 6,400위안(약 1.5억원)으로 나타남
- '보고서'에 따른 도시 주민들의 기대수명은 82세이며, 30~49세 주민들이 노년기에 필요한 자금은 100만 위안(약 1.8억원), 60세 이상은 61만 5,000위안(약 1.1억원)으로 집계됨
- 한편 노년기를 도심 양로원에서 보낼 예정이라고 선택한 주민이 80% 이상에 달했고, 월평균 3,161위안(약 58만원)을 지출할 의향이 있다고 밝힘

자료원 : 중국경제망

http://www.ce.cn/xwzx/gnsz/gdxw/202212/26/t20221226_38307254.shtml